

# 金屬活字本說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鑑別 方法 研究

A Study on the Distinguishing Methods for  
*Nammyungchenwhasangsongjungdoga's* Allegedly Metal Type Edition

조 형 진 (Cho, Hyung-Jin)\*

##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金屬活字本の 鑑別                 |
| 2. 文獻 記錄       | 4.1 木板本の 特徵 解明               |
| 2.1 “重彫鑄字本”    | 4.2 活字의 再使用                  |
| 2.2 重彫本の 底本    | 4.3 印版의 再使用                  |
| 3. 實物에 나타난 現象  | 4.4 印出面의 높이 差異 現象 등          |
| 3.1 匡廓의 斷切 現象  | 4.5 字樣의 一致 現象과 油煙墨의<br>墨色 特徵 |
| 3.2 墨色의 濃淡 現象  | 4.6 其他 科學的 方法                |
| 3.3 活字의 움직임 現象 | 5. 結 語                       |
| 3.4 補寫와 加筆 現象  | <참고문헌>                       |
| 3.5 쇠뚝과 철편 現象  |                              |

## < 초 록 >

공인박물관 소장 『南明泉和尚頌證道歌』가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활자의 재사용 현상
- (2) 印版의 재사용 현상
- (3) 印出面의 높이 차이 현상
- (4) 字樣의 일치 현상과 油煙墨의 특징
- (5) 기타 과학적 증거

要語: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공인박물관, 금속활자본, 감별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5년 9월 2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In order to certify *Nammyungchenwhasangsongjungdoga* as metal type edition which is collected by Kongin Museum, the following grounds must be submitted.

- (1) Evidence for repeated usage of type.
- (2) Evidence for repeated usage of printing black.
- (3) Evidence for height discrepancy of printing face.
- (4) Evidence for uniformity of character form and oil ink attribute.
- (5) Other scientific evidences.

Key words: *Nammyungchenwhasangsongjungdoga*, Kongin Museum, Metal Type Edition, Distinction

## 1. 緒 言

공인박물관 소장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이하 「증도가」로 약칭) (不分卷 1冊)에 대하여 鑄字本 = 금속활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sup> 이 판본<sup>2)</sup>은 이미 오래 전에 금속활자본의 복각본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2012년에는 목판본으로 인정되어 보물 758-2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전통 문화 유물의 문화재 지정은 진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증도가」 역시 동일하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 자세로 접근하여야 한다. 금속활자본으로 단정짓고 근거를 찾아내려는 연역적 연구 자세는 위험하다. 근거를 찾은 후 판본을 결정하는 귀납적 연구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그리하여 금속활자본으로 밝혀지면 증도가 금속활자의 실물과 함께 그 발명의 증거 자료가 되어 국가적 자존심을 세계에 알릴 자산이 될 것이다. 반대로 비학문적 자세는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만약 조작에 의한다거나 다른 저의 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시각 등 학문 이외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다른 판본을 금속활자본으로 왜곡한다면, 이는 판본 하나의 감별 실수에 그치지 않고 학술계를 분탕질하는 대단히 나쁜 행위일 뿐만 아니라,<sup>3)</sup>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국가의 망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박상국, “금속활자본 「남명천화상증도가」,” 보조사상연구원 제11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 (2015. 3. 21), 5-23.

2) 공인박물관 소장본. 과거 안동 박동섭 소장본·안동본이라 칭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부산 원진 스님 소장본·대성암 소장본이라고도 칭한다.

3) 전 금속활자장 오국진이 복원한 밀랍주조법(吳國鎭, 「直指活字 復元報告書」, (청주: 청주 고인쇄박물관, 1996)에 대하여 1987년부터 의구심을 품은 이후, 약 20년간 질문과 추적을 통하여 거짓임을 확신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황정하 청주 고인쇄박물관 학예실장의 배석 하에 본인으로부터 거짓이라는 실토를 받아들였다. 당시 청주 MBC 남윤성 PD로부터 “1995년 「직지」 관련 다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오국진이 밀랍주조법으로 금속 용액을 주입하였으나, 주입되지 않고 쇳물이 역류하여 튀는 현상을 촬영까지 하였다.”는 말을 직접 전해 들었다. 필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본인에게 정정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문화계청 등 관계 기관과 인사에게 관련 자료와 내용증명을 여러 통 발송하여 정정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였다. 충북방송은 직지 복제 관련 기획 점검 뉴스로 3일에 걸쳐 보도하기도 하였다(2004. 7. 9-12). 그러나 끝내 본인 스스로 거짓을 수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활자 관련 연구에서 이 거짓 보고서가 인용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증도가」는 금속활자의 발명과 연관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평생 활자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사실을 말할 줄밖에 모르며, 진실로 최근 발견된 증도가 활자도 진품이기를 기대하고, 금속활자본 「증도가」의 출현도 묵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마음이 이토록 간절하다 할지라도 거짓을 조작할 수는 없다. 복각본이면 복각본이라고, 금속활자본이면 금속활자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로 「증도가」의 금속활자본설에 대하여 모든 선입견을 배제한 채 객관적 자세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증도가」의 사진판과 실물을 2시간여 동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상국 님께 감사드린다. 충분한 검토까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실물 검토 결과 이 판본은 매우 특이한 특징을 두루 보이고 있다. 즉 묵색·농담·광택·문자 행렬 등에서 금속활자본·목판본·활자본의 복각본, 심지어 도활자본의 특징도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증도가」의 다른 2종의 판본<sup>4)</sup>과는 인출시기의 선후 현상이 혼재하고 있다.

---

예: 남권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연구의 성과와課題,” 2000 청주인쇄출판박람회 조직위원회,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문화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136-137. ; 남권희 등, 『直指와 金屬活字의 발자취』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일러두기, 147-159, 324-328. ;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인쇄술에 관한 종합적 검토,” 『고려시대 금속활자 “증도가자” 학술발표논문집』 (2011. 6). ;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에 관한 종합적 검토,”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332-335. ;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의 고려의 금속활자와 세계인쇄사의 재조명』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 8), 173-201, 『書誌學報』 제39호(2012. 6), 149-184에 전재. 인용 또는 참고 사례는 이 밖에도 더 있지만, 이들은 결국 헛된 연구가 되거나, 연구 내용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니 피해자인 셈 아닌가? 이를 생각하면 지금 돌이켜보도 본인의 입으로 바로잡게 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분하다. 거짓을 바로잡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관계 기관 중 일부는 개인감정이 아니냐? 며 오히려 저항하였다. 학문적 이유가 확실한 이것이 개인감정인가?

- 4) 1.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 1984년에 1239년 복각본으로 인정되어 보물 758호로 지정. 후쇄본으로 보인다.
2. 대구 개인(김병구) 소장본. 이 판본은 책 말미에 1472년의 金守溫 인경발문이 붙어 있어서, 그 무렵에 인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5년 3월 현재 이 발문을 떼어내고

이는 아마도 활자 인쇄 기술 발달 양상이 정착하기 전의 미숙한 초기의 판본 단계에서, 당시의 인쇄 장인들이 기술 개량을 위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 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또는 「증도가」의 다른 2종의 판본과 저본이 달랐거나 보판이 섞여있거나 보각 또는 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자와 광곽에서 가필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처럼 오늘날 이를 감별하기에 어려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文獻 記錄

### 2.1 “重彫鑄字本”

문제로 되고 있는 최이의 발문 중에서 핵심 부분은 “重彫鑄字本”이다.

이에 대하여 금속활자본설은 6명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해석을 살펴보면 한글 표현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중조본이 복각본인 경우와 금속활자본인 경우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이정섭: “주자본으로 다시 새겨”). 이를 감안하여 구분하면, 4명(김두중 · 박상준 · 이광호: “주자본을 중조” 또는 “주자본을 다시 새겨” · 김두재: “이전에 만들어진 활자본을 그대로 목판에 옮겨서 간행”)은 과거의 금속활자본을 이 당시(1239년)에 복각한 것으로 보았다. 다른 2명(이정섭 · 정원태: “중조함에 있어 주자본으로 하여”)은 이 당시에 금속활자본을 인쇄한 것으로 보았다.<sup>5)</sup> 금속활자본설은 이 중 후자를 선택하였다.

필자는 이 구절의 해석법에 대하여 이미 30여 년 전부터 고민하여 왔다. 결론은 농축된 언어인 한문의 태생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

문화재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3. 1종(대구 파계사 종진 스님본)이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

5) 한문의 한글 번역이 애매할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을 다시 한문으로 작문해 보면, 한글 번역이나 의미 분석의 정확도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다. 전자는 문자의 본래 의미에 충실하게 ‘주자본을 (목판에) 조각’한 것으로 “彫”를 해석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주자본을 인출’한 것으로 “彫”를 해석한 것이다. 이는 이미 500년 이상 이어져 온 목판인쇄의 ‘彫刻’이 ‘彫印’ = ‘印出’ = ‘印刷’, 즉 책을 찍어내는 개념으로 관행화 되었을 것으로 보아 가능한 해석이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문헌 기록의 해석을 바꾸어 금속활자본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목적성 해석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즉 금속활자의 기원을 가능한 한 소급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려는 시각이라면 전자로 해석할 것이요, 현재의 판본이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후자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1239년의 금속활자본이 출현한다면, 이에 근거하여 문헌 기록을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금속활자본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정직하고 순박한 우리의 조상은 문자에 충실하였다고 해석한 전자가 옳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더욱이 지금으로서는 1239년 당시, 늦어도 1472년 이전에 복각한 판본의 후쇄본<sup>6)</sup>이 현존하므로, 1239년의 주자본이

---

6) 후쇄본의 인출 년대 추정을 위한 척도 연구에 관하여 사족 하나 첨언한다. 목판본 중에 많은 후쇄본이 있으나, 후쇄 년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후쇄본의 인출 년대를 유추할 수 있는 척도가 없기 때문이다. 『증도가』 A본도 복각 후, 즉시 인출한 초쇄본이라기보다는 후쇄의 현상이 여러 곳에 나타나 보이지만 인출 년대는 알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연구 과제가 있다.

목판본의 목록 저록을 위하여 감별하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판각 년도와 인출 년도이다. 판각 년도의 감별은 간기가 있을 경우 쉽게 밝힐 수 있고, 간기가 없다 할지라도 기타 요소에 근거하여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출 년도의 경우는 변수가 있다. 목판본은 판각 후, 대체로 바로 인출하여 서적을 생산하므로, 이같은 초쇄본의 경우는 판각 년도와 인출 년도가 일치한다. 목판본의 장점 중 하나가 책판만 잘 보관하면 서적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수요에 제공할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초쇄본이 소진되면 후쇄본이 적지 않게 생산되곤 하였다. 이 후쇄본의 경우, 인출 년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오늘날 판각 년도는 알 수 있지만, 인출 년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후쇄본’으로만 저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후쇄본의 인출 년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

후쇄본의 경우, 책판 보관 기간이 흐를수록 건조가 진행되면서 목리(할렐)가 점차 커진다. 이 점에 착안하여 판각 년도와 인출 년도가 밝혀진 후쇄본을 여러 종 확인하여 기간 차이에 따른 목리 크기의 척도를 구축하면 인출 년도를 알 수 없는 후쇄본의 목리 크기에 근거하여 후쇄 년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판은 판각할 때 이미 연판과정을 거쳐서 가공한

출현하기 전까지는 문자의 본래 의미에 맞게 “彫”를 복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자본을 인출’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금속활자본은 현존하지 않으면서 복각 사실도 없는 복각본이 현존하고 있는 점과도 모순이다. 따라서 문헌 기록의 새로운 해석법을 찾기보다는 실물 판독으로 금속활자본 여부를 감별하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보인다.<sup>7)</sup>

김두재는 “重彫鑄字本”의 한글 해석을 오해 또는 두 가지 가능성의 여지없이 명확히 풀이하였다. 그러나 발문 전체에 대하여는 “한문의 문법 상 이 발문은 분명히 주자본(鑄字本)에 대하여 쓴 발문으로 보입니다. 목판본을 위해서 지은 발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sup>8)</sup> 이는 “重彫鑄字本”의 해석과 모순이다. “이전에 만들어진 활자본을 그대로 목판에 옮겨서 간행”하면서 지은 이 발문이 어떻게 “이전에 만들어진 활자본”의 발문이 될 수 있겠는가? 착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에 따라서 중조본이 복각본이라면 복각본의 발문이 될 것이고, 중조본이 주자본이라면 주자본의 발문이 될 것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최이의 이 발문은 중조본의 발문이다.

## 2.2 重彫本の 底本

금속활자본설은 더 나아가 이 판본에 서문과 후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송본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판본 발달사를 보면, 명대 이후로 송본을 복각하면서 과거의 좋은 판본을 복각하는 습관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활자로 인출하여

---

목재이므로 1-20년 이내의 단기간 차이에는 변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판각 후 3~50년, 6~70년, 또는 100년이 경과한 후에는 목리의 크기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즉 ‘목판본 후쇄본의 판각과 인출 년도 차이에 의한 목리 크기의 척도 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후진의 분발을 기대한다.

7) 필자는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로 약칭)의 자적만을 분석하여 직지 활자의 주조 방법과 조판 방법까지 추출할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직지」의 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즉 실물 판독만으로도 금속활자본 여부를 충분히 감별할 수 있다.

8) 박상국(2015), 10.

지방정부에 보내면, 지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복각하여 대량으로 유통한 인쇄 정책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대에 복각할 때 복각 사실을 정확히 밝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저본에 있는 과거의 각종 서문이나 발문까지 그대로 복각하는 습관이다. 이는 복각을 거듭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복각본의 저본을 추적하는 일은 서문과 발문의 복각 여부뿐만 아니라 판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증도가」의 저본에 대하여, “重彫鑄字本”을 전자로 해석한다면 금속활자본이 저본임은 확실하다. 후자로 해석한다면 이 금속활자본의 저본이 어떤 판본인지는 발문 기록에 전혀 설명이 없다. 서문과 후서는 가능성을 나타낼 뿐이다. 이 금속활자본의 저본이 송본이라는 주장은 비약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판본이 1239년에 인출한 금속활자본 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 3. 實物에 나타난 現象

#### 3.1 匡廓의 斷切 現象

금속활자본설은 공인박물관 소장본(A본)의 광곽이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B본)·대구의 개인 소장본(C본)과 일부(제1·2·5엽<sup>9)</sup>)는 거의 비슷하고 일부(제4·6·9·10·27·29·32엽)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였다. 같은 경우는 결락까지 그대로 번각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A본의 광곽이 결락처럼 끊어져 보이는 것은 광곽을 만들 때 쇳물이 녹아내려 높이를 맞추지 못한 때문이라 하였다(사진 1).

9) 제5엽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였지만, 확인 결과 비슷하다. 정리 상 제6엽의 실수로 보인다.

<사진 1> 「증도가」의 광곽 현상

A·B·C본 순		
제4엽상 제1행	제6엽상 제1·8행, 하 제1·8행	제27엽상 제1행
<p>好江南三月折花風暖鷓鴣啼</p> <p>好江南三月折花風暖鷓鴣啼</p> <p>好江南三月折花風暖鷓鴣啼</p>	<p>夜曹漢水遊蹤平人無限隨波淡</p> <p>放四大。獨坐獨行無罣礙破席閑拖</p> <p>向日眠何心更覓起三界</p> <p>即是如來大圓覺 更無一物可堪貴</p> <p>夜曹漢水遊蹤平人無限隨波淡</p> <p>放四大。獨坐獨行無罣礙破席閑拖</p> <p>向日眠何心更覓起三界</p> <p>即是如來大圓覺 更無一物可堪貴</p>	<p>十九年無一字龍宮海藏若爲傳</p> <p>十九年無一字龍宮海藏若爲傳</p> <p>十九年無一字龍宮海藏若爲傳</p>

필자의 판단으로 고려시대 당시 중앙정부의 금속기술 수준이 지극히 간단한 광곽용 금속 막대를 이렇게 고르게 만들지 못할 만큼 낮은 정도는 아니었다. 청동기 시대 이후 금속을 다루어온 조상의 지혜와 기술 수준은 신라시대에 이미 범종과 동경 등의 섬세한 문양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A본의 일부 광곽이 칼로 자르듯 단절된 모습은 “광곽을 만들 때 쇳물이 녹아내려” 비스듬해졌을 모습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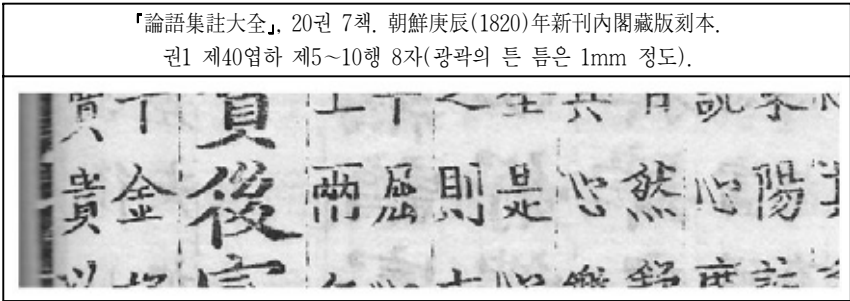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활자본에는 광곽이나 계선이 단절된 현상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하여도 몇 곳에 불과하며, 다른 엽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2~4개의 인판을 번갈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목판본의 경우, 광곽의 일부가 단절된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책판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판면의 일부가 파손되어 탈락된 결과이다. 둘째, 책판을 오랜 기간 보존하는 과정에서 건조되면서 나무가 튼 결과, 즉 木理<sup>10)</sup> 목재조직학에서 말하는 “할렬” 현상이다. 셋째, 건조가 더 진행되면서 목리의

10) 목재조직학에서는 이를 “할렬”이라 한다. 목리는 나무의 세로 절단면의 문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도가 심하여 책판이 빠개진 현상이다. 이 경우 광곽의 단절된 현상이 대체로 1~2mm 정도로 매우 작으면서도 본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보인다(사진 2).

<사진 2> 목판본의 목리 현상과 책판이 빠개진 현상



그런데 『증도가』에는 광곽의 일부가 단절된 현상이 A본과 B·C본의 인출시기의 선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엽에서 보일 만큼 너무 많으며, 단절된 현상도 매우 크고 모두 다르다. 파손에 의한 탈락으로 보이지만, 금속활자본이 아닐 가능성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목리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되, 광곽의 빠개진 현상이 본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제21엽하 제8행 제6자 “修”·제33엽상 제1행 제7자 “下”·제44엽상 제1행 제5자 “九”의 3곳이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이 점은 목판본이 아닐 가능성으로 보인다. 가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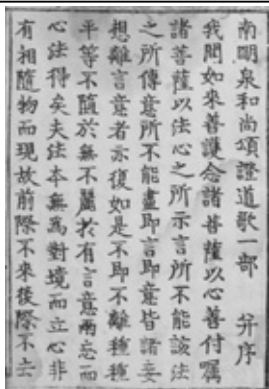
있는지를 복각본설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따라서 금속활자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B·C본과의 차이를 비교하기보다는, A본 내에서 단절된 현상의 반복 여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금속활자본 「증도가」를 인출하기 위하여 44개의 인판을 만들어 한번 사용하고 끝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 3.2 墨色の 濃淡 現象

금속활자본설은 판면의 문자에 따라서, 또 한 문자 내에서도 묵색의 농박 차이가 A본은 심하지만, B본은 고르다. 이는 활자의 높낮이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진 3).

<사진 3> 「증도가」의 농담 현상

A본의 판면	B본의 판면	A·B·C본의 문자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A</th> <th>B</th> <th>C</th> </tr> </thead> <tbody> <tr> <td>4b-7-1</td> <td>萬</td> <td>萬</td> <td>萬</td> </tr> <tr> <td>4b-8-7</td> <td>趣</td> <td>趣</td> <td>趣</td> </tr> <tr> <td>5a-5-2</td> <td>文</td> <td>文</td> <td>文</td> </tr> <tr> <td>5a-4-3</td> <td>福</td> <td>福</td> <td>福</td> </tr> <tr> <td>6a-6-3</td> <td>施</td> <td>施</td> <td>施</td> </tr> <tr> <td>8a-1-2</td> <td>酒</td> <td>酒</td> <td>酒</td> </tr> </tbody> </table>		A	B	C	4b-7-1	萬	萬	萬	4b-8-7	趣	趣	趣	5a-5-2	文	文	文	5a-4-3	福	福	福	6a-6-3	施	施	施	8a-1-2	酒	酒	酒
			A	B	C																									
		4b-7-1	萬	萬	萬																									
		4b-8-7	趣	趣	趣																									
		5a-5-2	文	文	文																									
		5a-4-3	福	福	福																									
6a-6-3	施	施	施																											
8a-1-2	酒	酒	酒																											

필자의 안목으로도 A본 판면의 문자에 따라서 약간의 묵색 농담차이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B본도 정도는 약하지만 역시 약간의 농담차이가 보인다. 이는 물론 인출면 활자 높낮이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책지의 지질과 먹물의 도포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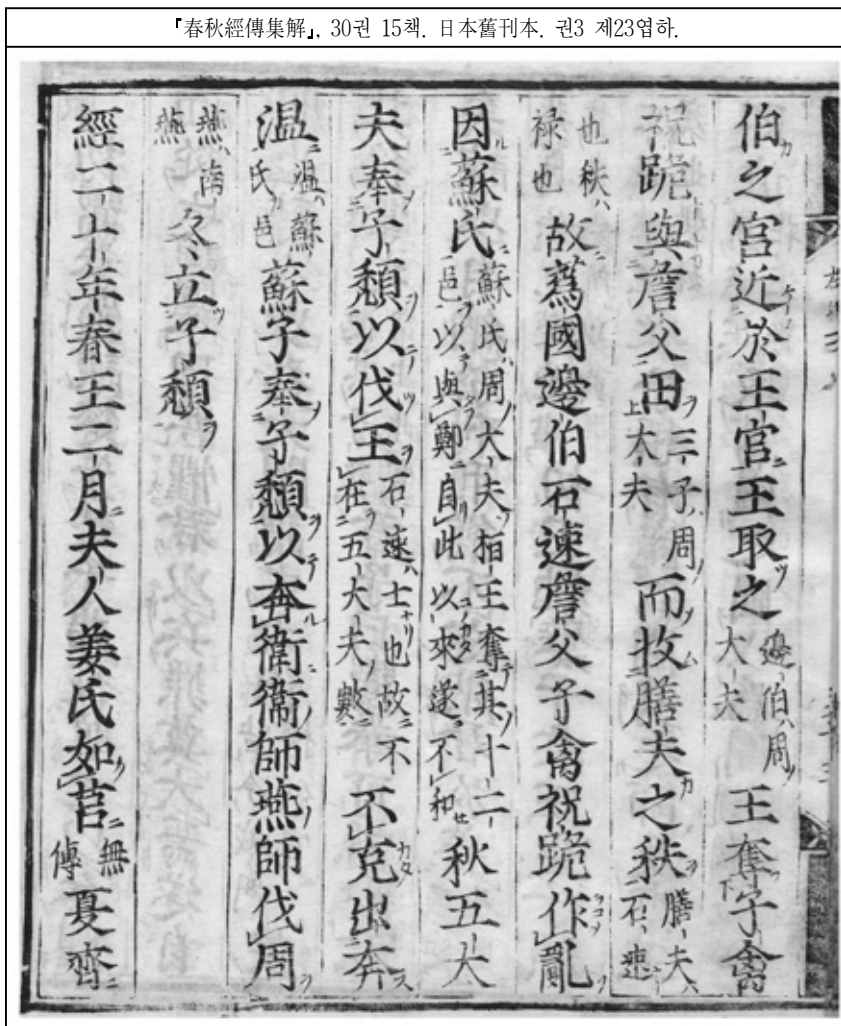
와 함께 밀대로 밀어내는 인출기술의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완전 수동식 인쇄의 특징이다. 농담 차이만으로는 활자본과 구별하기 어려운 목판본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농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인쇄 기술이므로 수준 높은 활자본은 농담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목판본과 비슷한 현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목색 농담 차이가 활자본의 큰 특징 중 하나지만, 이것만으로 A본이 금속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목활자의 경우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A본이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금속활자의 특징을 더 추출하여야 한다.


단독 문자의 농담 분석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우선 가필은 제외하여야 한다. 목판본에도 문자에 따라서 농담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사진 4). 정상적인 문자에 나타난 현상이 활자로 인한 것인지, 인출 과정상의 특징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 3>에서 예시한 문자에는 활자의 특징인 듯한 것도 있고, 다른 요소에 의한 것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활자본의 분석은 주변 문자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하좌우 활자의 영향으로 농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4-1> 목판본 문자의 능담 현상(판면 전체)

『春秋經傳集解』, 30권 15책, 日本舊刊本, 권3 제23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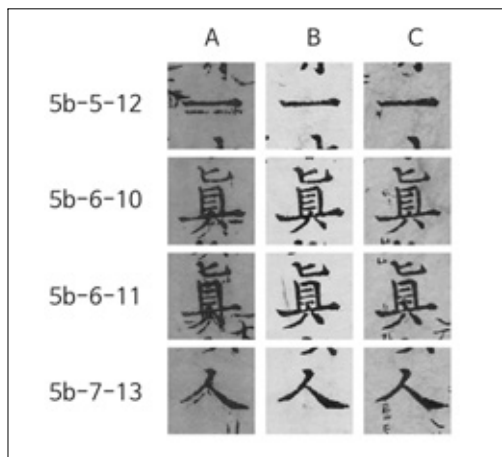
<사진 4-2> 목판본 문자의 능담 현상(문자 부분)

『山谷詩集注』, 清宣統2(1910)年傅春官覆宋紹興刻本 (각 엽 상 또는 하 이하의 숫자는 行字 수, 이하 동).			
권2 제15엽하 1-8	권2 제20엽하 9-9우“盧”	권2 제21엽상 4-11	권2 제27엽상 4-5
			
권1 제7엽하 3-4~9	권1 제9엽하 9-6~9	권1 제12엽하 4-4~9	권2 제21엽상 9-1~9
			

### 3.3 活字의 움직임 現象

금속활자본설은 A본에 조판 미숙으로 활자가 밀렸다고 하면서 사례를 예시하였다. 목판본에는 있을 수 없다고도 하였다(사진 5-1).

<사진 5-1> 「증도가」 A본의 활자 움직임 현상



필자의 견해로는 완전한 감별 실수다. 이는 인출장의 실수에 의한 이중인출 현상이다. 인출장이 인판에 먹물을 도포한 후, 책지를 인출면 위에 얹을 때 부주의로 단번에 얹지 못하고 약간 움직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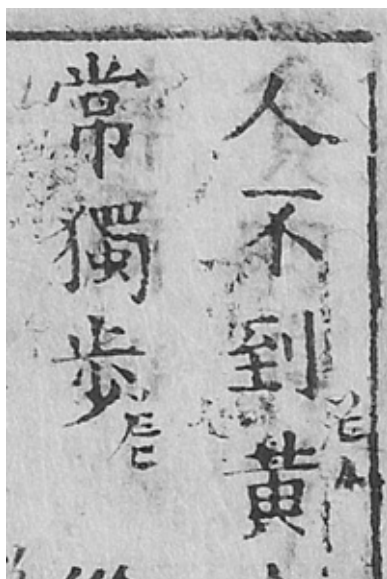
금속활자본설은 계선이 없는 제5엽하의 본문용 활자가 움직인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5-1>에 제시된 것처럼 인출된 문자의 자적만 보면, 마치 활자가 움직여서 나타난 결과로 보일 수도 있다.

A본에는 이중인출 현상이 제5엽하·제6엽상·제9엽상·제10엽상·제29엽하·제39엽상·제43엽하 등의 7곳에 보인다. 그 중 제9엽상에는 우변 상부의 광곽이(사진 5-2), 제43엽하에는 우측의 판심 계선이 활자와 함께 이중인출되었다. 만약 금속활자본설대로 활자가 움직였다면, 독립된 개체인 활자의 움직인 정도와 방향

등이 각각 달리 나타나야 할 것이며, 광곽과 계선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활자가 움직였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곽이나 계선도 활자와 동일한 방향·거리·각도의 이중인출 현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중인출된 유격이 활자가 움직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경우도 있다. 이는 활자가 움직여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인출장의 실수로 인하여 인판과 책지와와의 관계가 움직인 방증이다.



이러한 현상은 목판본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사진 6). 동일한 판본이라 하여도 모든 복본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중인출 현상은 필자가 2003년 활자본의 인쇄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척도를 계량화하여 제시할 때, 평가 요소의 하나로 제시하였다.<sup>11)</sup>

<사진 5-2> 「증도가」 A본의 이중인출 현상  
(제9엽상, 제1~2행, 제1~4자 본문과 광곽)



11) 조형진,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369-406.

<사진 6> 목판본의 이중인출 현상

<p>『山谷詩集註』, 清宣統2(1910)年傳春官覆宋紹 興刻本. 권1 제27엽하 제8~9행 제13~16자.</p>	<p>『論語集註大全』, 朝鮮庚辰(1820)年新刊內閣藏版刻本. 권8 제18엽하 제11자 이하.</p>
	

### 3.4 補寫와 加筆 現象

금속활자본설은 전혀 인출되지 않거나, 일부 필획이 불완전하게 인출된 문자를 완전하도록 보충하였는데, 이는 활자가 낮거나 기울어져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사진 7).

<사진 7> 「증도가」의 보사와 가필 현상

보사 문자			가필 문자			
	A	B	C	A	B	C
27a-1-5						
29b-8-15						

필자의 판단으로는 문자가 전혀 인출되지 않을 정도는 교정과정에서 수정된다. 더욱이 고려시대 중앙정부의 활자본에서 문자가 인출되지 않은 현상을 그대로 두고 인출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또한 문자가 인출되지 않거나, 일부 필획이 불완전하게 인출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부 필획이 불완전하게 인출된 문자는 목판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제시한 서영을 보면 A·B·C본이 공히 유사해 보인다. 금속활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補寫나 加筆 문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 3.5 쇠뚫과 첩편 現象

금속활자본설은 쇠뚫 자국과 첩편이 반영된 문자를 예시하고 있다(사진 8).







<사진 8> 「증도가」의 쇠뚫과 첩편 현상

쇠뚫 현상				첩편 현상			
	A	B	C		A	B	C
5b-4-4				4a-2-14			
7b-6-9				7a-6-5			
8a-2-4				8a-5-2			
10b-2-10				9b-8-3			
12a-1-8				13a-4-11			
12b-2-6				14b-7-3			

필자의 생각은 목즙이 인출 과정에서 번진 현상이 아닌가 판단하여야 한다. 또 목즙을 도포하는 과정에서 먹술의 부스러기가 인출면에 붙어서 자적으로 반영된 경우도 구별하여야 한다(사진 9).

금속활자는 주조 과정에서 너털이가 없을 수 없다. 이는 사용 전에 깨끗이 다듬는다. 활자의 문자면을 제외한 동체상의 너털이는 깨끗이 다듬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자면상의 너털이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체로 폐기하는데, 너털이의 정도가 가벼워서 사용할 만한 경우는 문자면과 동일한 높이까지는 다듬는다. 따라서 필획 사이의 너털이에 의한 잡목이 문자와 함께 인출된다. 주의할 점은 이 너털이의 목색도 문자와 동일하다. <사진 8>에서 예시한 사례는 쇄뚝 또는 철판 부분의 목색이 문자 부분과 농담이 완전히 다르다.

<사진 9> 먹술 부스러기 등이 인출면에 반영된 문자

『山谷詩集注』, 清宣統2(1910)年傳春官覆宋紹興刻本.		
권1 제14엽상 9-5	권2 제10엽상 4-3	권1 제2엽하 3-16
		
권1 제16엽하 8-3	권1 제21엽상 1-5	권2 제8엽상 1-14
		

이상 제시된 금속활자본설의 증거는 모두 간접 자료로서, 목판본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목판본에 흔하지 않은 현상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뿐만 아니라 복각본인 B·C본과 다르니까 A본이 금속활자본이라는 판단은 비약이다. A본 역시 또 다른 목판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본으로부터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 4. 金屬活字本の 鑑別

금속활자본설의 근거가 부족하다면, 무엇을 찾아내어야 금속활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금속활자본의 감별 방법이 실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 4.1 木板本の 特徵 解明

「증도가」가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우선 목판본의 특징을 해명하여야 한다. 광곽 등 이미 거론된 요소 외에도 수많은 판심 계선과 문자 상의 목리 현상, 판심 하단의 인명 등이다. 특히 판심 하단의 인명은 거의 목판본에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아직까지 활자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각수명으로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알려져 있다. 간혹 약칭이나 흘려 쓴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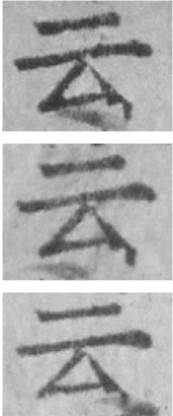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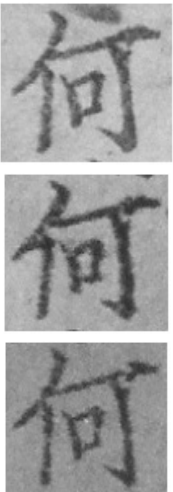
「증도가」에는 得·東伯·叔岐·玠才·唐甫·公大·吳準·一明·二世·元暉·思集 등 11명의 인명이 있다. 이 중 東伯·玠才·公大·一명의 4명은 「증도가」의 복각이 이루어지던 1239년에 「再雕大藏經」의 각수로도 참여하였다. 이들과 함께 唐甫·吳準도 1236년부터 1251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再雕大藏經」의 각수로 참여하였다.<sup>12)</sup>

12) 남권희 등, 『『南明泉和尚頌證道歌』 복원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청주: 청주시, 2003), 39-40, 51-55.

## 4.2 活字의 再使用

궁극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금속활자본의 방증을 종합적으로 찾아야 한다. 활자 인쇄는 목판인쇄의 책판에 조각한 문자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을 극복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인쇄 효율을 높이려고 발명된 기술이다. 따라서 활자의 생명은 재사용이다. 「증도가」에 수록된 8,660개의 문자를 위하여 8,660개의 금속활자를 만들어 한 번 사용하고 끝냈을 리는 만무하다. 재사용 여부를 찾는 방법은 똑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원리에 착안하여, 금속활자본설이 제시한 쇄뚝 문자, 철판 문자 등의 독특한 문자, 또는 기타 10여 획 정도의 특징적인 문자를 선정하여 「증도가」에 사용된 경우를 모두 추출하여 비교하면 간단하다(사진 10). 역설적이게도 완벽하게 구조된 활자의 자적을 피하는 이유는 하나의 활자로 두 번 찍었는지, 두 개의 활자로 각각 한 번씩 찍었는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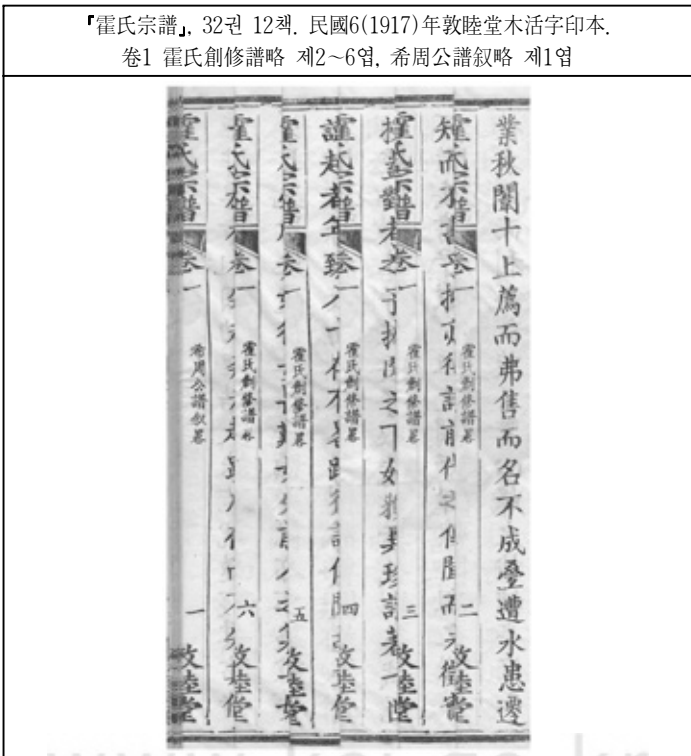
<사진 10> 활자 재사용의 예

「直指」卷下		
6下8-5, 下7-17, 15上10-12	13上4-4, 20上6-17, 32下5-5	4下10-13, 6下4-17, 10下4-3
		

### 4.3 印版의 再使用

인판 역시 반복하여 재사용하였음은 물론이다. 필자의 감각으로 「증도가」의 인출을 위하여 1~4장의 인판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인판에 고정적으로 쓰이는 광곽·계선·판심·어미·광곽과 계선의 缺口 등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서 제시하면 간단하다. 民國6(1917)年敦睦堂木活字印本인 「霍氏宗譜」의 卷1 霍氏創修譜略 제2~6엽과 希周公譜叙略 제1엽까지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상하 광곽 내선의 들림과 끊어짐, 판심 계선의 이어짐 또는 끊어짐, 흑어미의 모양 등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사진 11).

<사진 11> 인판 재사용의 예



#### 4.4 印出面의 높이 差異 現象 등

이밖에 인출면을 구성하는 광곽·계선·판심·활자 등 각각의 높이 차이에 의한 현상(사진 12), 문자의 전도와 탈락 등도 유력한 방증이다. 이상은 목활자 등을 포함한 활자본의 방증이다.

<사진 12> 인출면 활자 및 광곽과 활자의 높이 차이 현상





#### 4.5 字樣의 一致 現象과 油煙墨의 墨色 特徵





더 나아가 금속활자본의 특징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 엽에 쓰인 복수의 동일한 문자의 자양 일치 여부(사진 13), 금속활자에 사용하는 유연묵의 묵색 특징(사진 14) 등도 추출할 수 있다면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양

의 일치 여부는 금속활자의 구조 방법까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증도가」 A본이 금속활자본이라면 금속활자본의 특징은 그 안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인쇄기술사적 안목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사진 13> 동일한 문자의 자양 일치 현상

『東坡先生詩』, 25권 25책, 朝鮮甲寅字1434-1450年間印本.	
卷6 제3엽下 2-3~4·8-3~4	卷6 제20엽下 4-4·5-16·9-6·10-15
	

<사진 14> 유연목의 목색 특징

直指活字의 字跡. 권하 제3엽下 5-18·제3엽下 7-16· 제5엽下 8-9	甲寅字의 字跡 (『東坡先生詩』, 1434-1450年間印, 卷6, 제3엽下 4-2~3, “雪”은 木活字補字)
	
	

## 4.6 其他 科學的 方法

판본학적 감별 방법 외에도 금속활자본의 방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현재 증도가 활자 실물이 일부는 진품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인본상의 자적과 대조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증도가」의 실물이 존재하므로, 이로부터 먹과 종이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면 탄소 동위원소 측정 등 과학적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sup>13)</sup> 이는 물론 시료의 양이 분석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③ 다행스럽게도 「증도가」 실물에는 당시의 구결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구결 연구를 통하여 간행 연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④ 목재조직학적 측면에서도 「증도가」에 찍힌 자적이 어떤 재질로부터 인출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5. 結 語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1239년의 주자본이 출현하기 전에는, 복각본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彫”를 문자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복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공인박물관 소장 「증도가」를 금속활자본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광곽·묵색 농담·이중 인출·가필·너덜이 등 제시된 현상은 간접 증거로서 직접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증도가」가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활자의 재사용 현상
- 2) 印版의 재사용 현상
- 3) 印出面의 높이 차이 현상

13) 황정하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실장 조인.

- 4) 字樣의 일치 현상과 油煙墨의 묵색 특징
- 5) 기타 과학적 증거

공인박물관 소장본은 적지 않은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가필 현상이 문자와 광곽에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제외하여 순수한 연구 대상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 일부 옆에 나타난 문자의 필획이 B·C본보다 가는 현상, ③ 광곽의 결락에 선후가 혼재하고 있는 현상이 혹 가필로 인한 혼란인지, ④ 광곽에는 목리 현상이 크고 뚜렷한데 인접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이유, ⑤ 판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목판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농담 차이 현상 등은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판본이 어느 판본으로 결론이 날지라도 그 가치는 금속 활자의 발명작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미 어마어마하다.

## <참고문헌>

### 1. 실물 자료

- 「霍氏宗譜」, 32권 12책. 民國6(1917)年敦睦堂木活字印本.
- 「南明泉和尚頌證道歌」, 不分卷 1冊, 대구개인(김병구)소장본.
- 「南明泉和尚頌證道歌」, 不分卷 1冊, 1239년복각후쇄본, 보물 758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 「南明泉和尚頌證道歌」, 不分卷 1冊, 공인박물관소장본.
- 「論語集註大全」, 20권 7책. 朝鮮庚辰(1820)年新刊內閣藏版刻本.
- 「東坡先生詩」, 25권 25책. 朝鮮甲寅字1434-1450年間印本.
- 「儷文程選」, 12권 6책. 朝鮮訓練都監字本.
-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卷下 1책, 宣光七(1377)年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本,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Mss, 극동부109.

『山谷詩集注』, 39권 20책. 淸宣統2(1910)年傅春官覆宋紹興刻本.

『春秋經傳集解』, 30권 15책. 日本舊刊本.

## 2. 저술 및 논문

남권희 등. 『直指와 金屬活字의 발자취』.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남권희 등. 『「南明泉和尚頌證道歌」 복원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청주: 청주시, 2003.

남권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研究의 成果와 課題.” 2000 청주인쇄출판박람회 조직위원회,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문화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박상국. “금속활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보조사상연구원 제110차 정기 월례 학술대회(2015. 3. 21).

吳國鎭. 『直指活字 復元報告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6.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에 관한 종합적 검토.”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書誌學報』 제39호(2012. 6). 149-184.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고려의 금속활자와 세계인쇄사의 재조명』.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 8.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인쇄술에 관한 종합적 검토.” 『고려시대 금속활자 “증도가 자” 학술발표논문집』. 2011. 6.

조형진.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369-406.

